

아침햇살

2016
SUMMER

- 한미특수교육센터 안내&소식 2
- 로사 장 칼럼 한미특수교육센터가 16살이 되었습니다! 3
- 발달정보 연령별 언어발달 4-5
- 밝은마음상담실 Parenting 6-7
- KASEC Voice 즐거운 농구교실 8-9
- 장애정보 Bullying 10-11
- 치료정보 놀이치료란 12-13
- 행사후기 I Love&Harmony 음악회 14-17
- 행사후기 II OC 무료발달검사 18
- 프로그램 안내 19
- 이달의 후원자 20

한미특수교육센터 소식

1. 지난 4월 22일 저희 센터는 Family Support Network(FSN)와 함께 OC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발달 검사 행사를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에서 열었습니다. Open bank, Kevin Na Foundation, Noah Fund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0-5세 사이의 아이들을 위해 총 7가지 발달 영역(vision, hearing, speech, fine and gross motor, social-emotional, dental)에 대한 검사를 제공하였습니다. 행사에 대한 후기는 p. 18 에 있습니다.
2. 4월 24일 저희 센터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Love and Harmony Music Festival을 주최하였습니다. 관객 600명과 7개의 단체가 참여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음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14~17에 있습니다.
3. 7월 6일부터 4주간 수요일에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Summer Music Camp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힐링타임 세션도 함께 진행됩니다.
4. 7월 한달간 이중언어 Speech Evaluation을 실시합니다. 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영어로 검사를 받게 되면 정확한 검사와 진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언어 치료사에 의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학교에서 받는 서비스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언어치료 방법들” 워크샵도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오는 9월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Regional center와 함께하는 “Transition to Adulthood”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애학생의 고등학교에서의 전환교육과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직업재활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 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2000년 특수교육전문가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개인과 개인 사업자, 그리고 자선기관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인 장애인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해 다양한 교육/치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특수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언어치료, 특수음악프로그램, 개별 특수교육, 놀이치료)
2. 아동, 청소년, 성인 및 가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3. 학교관련문제 및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아스퍼거증후군 상담
4. 학부모를 위한 특수교육 및 Parenting세미나와 워크샵
5. 전문가를 위한 최신 특수교육 및 치료정보 워크샵과 심포지움 주최
6. 특수학교와 장애관련 프로그램 정보 및 자료 제공
7. 특수교육 관련 법률 Referral Service와 사회복지 정보 안내
8. 매스컴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활동과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행사 주최
9. 장애 및 치료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무료 계간지 “아침햇살” 발간

언어소통의 어려움이거나 Special Education Service 등에 관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문의: (562) 926-2040



한미특수교육센터가 16살이 되었습니다!

2000년 6월, Buena Park에 있던 Benjamin University의 방 한 칸에서, 양한나 이사장님과 함께 아이에게 장애가 있어도 정보가 없어 장애인지 모르고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과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돕고자 사명감과 열정만 가지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할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센터는 지난 16년동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문을 열고 캘리포니아 뿐 아니라 수많은 미국 전역의 한인 부모님들, 그리고 이민을 생각하시는 한국 부모님들의 고민을 상담해 드렸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는 우리 장애아이들의 권리를 알리고 지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부모님들께 장애와 특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것은 물론, 한인장애아동과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1.5세, 2세 특수교육 전문가들과 치료사들을 양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저희가 16년동안 버텨올 수 있었던 힘은 오직 사명감 하나로 희생하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과 센터를 믿고 학생들을 맡겨주시고 저희의 수고를 고마워해주신 부모님들 그리고 10불이라도 장애인의 교육과 치료를 돕겠다는 후원자들의 정성어린 후원과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얼마전, 한국의 장애인관련교육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이 일하는 회사 등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도 최근 몇년 동안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많이 생겼고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과정에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여 그 결과 작년에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 되지 않고 있었기에 한국의 부모님들은 시청 앞에서 삭발 농성을 해야했고 드디어 40여일만에 부모님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민자로서의 미국에서의 삶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편하고 풍요롭기만 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이곳은 장애인의 천국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천국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노력으로 얻어내야하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발달장애인법이 있었고 많은 서비스들이 실행되고 있는 곳에 살기에 더 많은 Resource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삶의 질을 위한 요구가 있다면 찾아나서야 하고 적합한 서비스가 없다면 요구해야 합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고 문화적으로 많이 다른 사회이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부모님들처럼 시청 앞에서 삭발하며 농성하지는 않아도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얻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저희 센터가 앞장서서 불모지 같은 이곳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리려 나무를 자라게 했다면 이제부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분들은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Sweet 16! 이제 센터가 성인기를 향해 한발 더 다가서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부모님들과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하하 연령별 언어발달 체크해보기

1) 0-1세

이 연령에서는 아동이 말하기 위한 기초를 쌓게 된다. 울음, 웅얼이 등에서 호흡, 발성, 의사소통 방법을 연습하게 된다. 또한 생후 8개월-1세에는 첫 낱말이 시작되는데, 첫 낱말은 아이가 흔히 접하고 필요로 하는 것 중에서 선택된다(예. 엄마, 아빠, 물, 맘마, 쥐 등).

수용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난 음성에 울거나 두려워함 • 소리가(음성, 소음) 나는 방향으로 돌리기 • 자기 이름을 부르면 하던 행동 멈추기/머리 돌리기 • ‘이리온’, ‘안녕’하며 손을 벌리면 손을 뺀다. • 간단한 동작 모방-짜짜공, 빠이빠이에 반응 • ‘안돼’ 하면 일관성 있게 하던 행동을 멈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음절 반복하여 소리내기(바바) •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소리나 음절을 • 모방하고 정상적인 웅얼이 시작 • 짹짹이나 까공놀이와 같은 것을 스스로 시도 • 첫 단어 출현 • 일관성 있게 3개 이상의 단어

2) 1-2세

첫 낱말 이후 계속적이며 점차적인 어휘 증가가 나타난다. 18개월 정도 되면 주위 환경, 감정, 요구, 표현을 두 단어를 결합하여 문장을 만들기 시작한다. (예. 물 쥐)

수용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명령, 금지(만지지 마) 이해 • 가족, 물건(친숙한 것)을 인식하여 요구에 따라 물건 가져오거나 지적하기 • 단순한 의문사 질문에 대답(누구야?, 뭐야?) • 한번의 구두 요구 후, 4개 이상의 익숙한 물건 중 두 개 이상 가려내기 • ‘나에게 쥐, 엄마에게 쥐’ 이해 • 5개 신체부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6개 정도의 어휘(14개월 정도) • 계속적이며 점차적인 어휘 증가 • 두 낱말 조합 시작(예. 엄마 까까. 우유 쥐) • 노는 동안 환경음 모방(동물소리, 모터소리) • 단순한 동사 출현(쥐, 가) • 익숙한 가족과 사물의 이름대기

3) 2-3세

2세 정도가 되면 아동들이 알고 있는 것이나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두 단어로 된 문장형태를 주로 이용한다.

수용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 이해하여 적절한 그림 고름 • 가족이라는 개념을 이해 • '위/아래, 안' 이해 • '누가, 뭐, 어디' 질문 이해 • 크다/작다, 많다/적다 이해 • 단순한 두 단계 지시 실행(공 주고 컵 가져와) • 7개 신체부분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2단어 혹은 3단어로 된 문장 사용 • 적어도 한 가지 색깔 올바르게 말하기(27-30개월) • '너 이름이 뭐니'에 이름을 말한다. • 의문문으로 질문하기 시작(누가 왔어?) • '뭐 하는 거니?' 용도를 물으면 대답(신, 연필) • 대소변에 대해 말로 표현 •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 '뭐 해?'로 물으면 대답

4) 3-4세

3세 경이 되면 한 번에 세 단어 혹은 그 이상을 말하기 시작한다. 주어+목적어+동사(예. 성재 빵 먹어)로 구성되는 단순한 문장 형태로 표현이 이루어지며 이들 각 요소(주어, 목적어, 동사)들은 좀 더 긴 절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수용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남자'의 성구별에 대한 이해 가능 • 3가지 색깔 구분할수 있다. • '무겁다/가볍다, 길다/짧다' 이해 • 몸의 각 부위(목, 배, 가슴 무릎 등)을 가리킬 수 있다. • '먹는 것, 입는 것, 타는 것' 등으로 사물 분류 • '같다/다르다'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해서 3개 숫자 반복 • '뒤에 쓰이는 물건이니?'에 대답(침대, 망치, 거울 등등) • 배 고프면 어떡해?(잠오면, 추우면 등)에 대한 대답 • 3가지 색깔 이름 말하기 • '누가, 무엇, 어디, 왜, 어떻게' 의문사를 사용하여 질문 • 나이 말하기 • 인칭 대명사 사용(너, 나,우리)

5) 4-5세

이 시기에는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되어 표현된다(나는 밥 먹고 누나하고 놀꺼야). 종속 접속사(그래서, 그리고 등)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문법적 오류는 나타나지만 언어 구조, 형태 면에서 완성도가 높아진다.

수용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쁘다, 슬프다, 화났다' 감정 표현 이해 • '봄, 여름, 가을, 겨울' 이해 • '첫번째, 두 번째/가운데, 마지막' 이해 • 간단한 동화의 4장면 순서를 이해 • '더 크다, 더 작다' 비교 개념 이해 • 특정한 그룹에 속하지 않는 그림 찾아내기 (ex. 동물 들 가운데 음식그림이 있다면 음식이 이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되는 문장 사용시 반대말 사용(크다-작다) • 더 길고 복잡한 문장(복문) 사용 • 접속사 사용 • 주소, 전화번호 말하기 • '왜'라는 질문에 이유 설명하기 • 물건의 크기, 모양, 기능에 대해 설명하기 • 전화 받고 바꿔주기 가능. 간단한 메시지 전달 • 자기와 주변에 관한 이야기 가능



Parenting Skills on Negative Behaviors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act out하거나 문제행동(negative behavior)을 일으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아이를 어떻게 훈육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 부모님께서 매번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를 하기 보다는 일상속에서 아이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늘린다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문제행동들이 줄어듭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늘리는 4가지 스킬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For a child, negative or “bad” attention is better than no attention at all. So if a caretaker is busy or not paying attention to the child regularly, they will purposefully engage in “bad” behaviors to get the attention of the caregiver. Children are smart, they would rather be scolded and have that connection than nothing at all. It is also important that you set the age appropriate expectations and make sure that the things you expect from your child are age appropriate and also that you’re setting a good example for them of the behaviors that you want. So you can’t yell at them and tell them to stop yelling, or hit them and tell them to stop hitting. This could be highly confusing, especially for a young child.

Here we want to focus on teaching the parents how to positively interact with their kids on a day to day basis through play therapy tech-

niques. Since finding time to play every single day could be difficult, parents can set aside a predictable date and time every week for 30 minutes. For example, every Wednesday from 6:00-6:30.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are key. There should be NO QUESTIONS during this play time. If questions are asked, then turn that question around and ask the child instead of answering it. Also, there shouldn’t be any interruptions so make sure siblings are with another caretaker and that your phone is turned off. If a child knows when to expect what, their anxiety is decreased and therefore their negative behaviors are decreased. Before entering play-time, or anytime parents deal with the child, the caretaker has to be calm and not match the child’s level or emotion. Also on a daily basis, caretakers should be providing their child with positive statements and more physical touch as in hugs/kisses.

4 Skills that parents can use:

1. Reflective responding of emotions

(아이의 감정 읽어주기)

아이가 슬프거나 화난다는 감정을 표현했을때, 부모님께서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아이의 기분을 바꾸려기 보다 “~때문에 슬프구나”하는 말에 아이들은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All emo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categories: happy, sad, angry, and scared. When a child feels an emotion, responding by stating, “You are...,” “You feel...,” “That makes you...” will allow the child to know that you are there with them rather than making them change their emotions. It is important that you provide a safe place for your child to feel these emotions and work through them without judgment or criticism.

2. ACT limit setting. (ACT 규칙정하기)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되,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과 하면 안되는 행동을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This method of limit setting is very important as it identifies the child's emotion and acknowledges it while still communicating the rules, and provides an alternative to the behavior that is unwanted. The following is an example.

- ♡ Acknowledge the feeling
“Sarah, I know you're mad at me.”
- ♡ Communicate the limit
“But I'm not for hitting.”
- ♡ Target alternatives
“You can pretend the pillow is me and hit it instead.”

3. Choice Giving (아이에게 선택권 주기)

나이에 맞게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아이가 정해놓은 규칙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부모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 ♡ Little choices for little kids (age appropriate choices):
 - Do you want to wear your red dress or pink dress to school?
- ♡ Avoid power struggle (make the choices ahead of time):
 - I made your favorite cookies, would you like 1 or 2?

♡ Oreo cookie method (giving them control in a situation where they don't have a choice):

- You can choose to sit in the front seat with daddy or sit in the back seat with Sarah - which do you choose?

♡ Enforcing household rules (two choices- phrase positively then as a consequence):

- when you choose to pick up your toys before dinner, you are choosing to watch 30 minutes of television after dinner. If you choose not to pick up your toys before dinner, you choose not to watch television after dinner.

4. Internal vs External validation (내적 & 외적 강화)

아이를 칭찬할 때 결과 보다는 노력.과정에 대해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 Encourage the effort rather than praise the product. Children need encouragement.

♡ Be specific about your praise.

- “You worked so hard on that puzzle. You must be so proud.”

♡ Focus on your child's efforts and make it personal

- Saying “good job” makes it YOUR judgment
- “Good trying”

♡ Encouraging phrases that recognize effort and improvement”

- You did it! You got it!
- You really worked hard on that.
- You didn't give up until you figured it out.

♡ Encouraging phrases that show confidence:

- I have confidence in you. You'll figure it out.
- Sounds like you have a plan.
- Knowing you, I'm sure you'll do fine.

♡ Encouraging phrases that focus on contributions, assets, and appreciation:

- Thanks, that was a big help.
- It was thoughtful of you to _____.
- I appreciate that you_____.

농구교실 봉사자 후기



자폐등의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운동 기술 수준의 차이, 인식의 부족, 원활한 상호 교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축구와 농구등 단체 활동의 수행이 어렵습니다. 이로인해 아동기에 집단 활동으로부터 배제되며 결과적으로 적절한 또래 관계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합니다. 이를위해 센터에서는 농심의 후원으로 지난 2월부터 장애학생들이 특수체육교사와 함께 비장애학생들과 어울려 연령에 맞는 적절한 행동들을 학습함으로써 또래들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할수 있도록 통합 농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월, 한미특수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학생 농구교실에 처음 봉사자로 농구 코트에 발걸음한 저는 갖 대학을 졸업한 자신감이 넘치는 '신생아 사회인'이었습니다. 대학시절 영어영문학과와 더불어 교육학을 전공했던지라, 아이들을 대하는 것은 수월할 것이라고 자만했었나 봅니다. 농구의 '농'자도 모르는 저는 그렇게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멘토와 롤모델이 되리라고 다짐했었습니다. 이렇게 부풀린 기대를 안고 간 저에게 봉사활동의 첫 짜주는 그야말로 크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제가 상상한대로 너무나 사랑스러웠지만, 제가 그렸던 저의 멋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화를 내고 집중하기 힘들어 하는 아이들 틈 속에서 더더욱 힘들어 하는 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인터넷을 통해 '장애'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그러다 우연히 자폐증이 있는 아이의 시선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내 눈이 아닌, 장



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눈을 통해 당연시 여겼던 일상생활들을 보며 제가 왜 봉사활동 첫 째주를 힘겨워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그래왔듯이, 내 자신의 시선 밖에 헤아릴 줄 몰랐고,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어찌면 아이들의 입장은 뒷전으로 미뤘던게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제가 맡은 아이들은 나이가 더 많은 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동생이라기 보다는 같이 무언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친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매주 한미특수교육센터에서 저에게 주신 '파트너'라는 이름을 달고 아이들과 뛰다 보니 언제부턴가 저는 아이들이 더 이상 '틀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저와 또는 제 주위에 사람들과는 그저 조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는 절대 색안경은 끼지 않겠다고 자만하는 저였지만,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저는 제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제 측은지심과 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봤다는 것 자체가 편견이 아니었나 하는 것과 이렇게 아무리 좋은 뜻으로 품은 색깔도 제 시야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뒤돌아 보면 한미특수교육센터의 장애학생 농구교실에서 보낸 시간들은 봉사자인 제가 오히려 준 것 보다는 받은 것이 훨씬 많은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Bullying 대처방법



학생들이 장애, 인종, 성별에 관한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연방법은 물론 주법, 지방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은 학생의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보호합니다. 하지만 학생들간에 일어난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법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괴롭힘의 정도가 아주 심해 고통당한 학생이 학교 생활에 참여하는데 힘들다거나 공부를 하기 힘들게 되었을때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학생이 bullying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학생의 선생님에게 알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만약 괴롭힘이 계속 되거나 심해진다면, 교장선생님이나 superintendent 에게 연락을 즉시 해야합니다.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학습장애가 있다면, 특히 bullying 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Section 504인 Title II and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의하면,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FAPE)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놀림, 괴롭힘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즉시 IEP 미팅을 잡아야합니다. 미팅 전 가지고 있는 모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께 bullying에 대해 보냈던 편지, 증거사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IEP팀과 부모님은 아이를 위한 safety plan을 세워 아이가 더이상 bullying으로 피해 받지 않도록 계획해야 하고, 학생이 만약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 상담 서비스도 함께 진행해야합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 Bullying이 의도적이고 심각했다면, 가해학생들은 형사법상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학교가 이 bullying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학교 또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우울감, acting out, 식욕감퇴나 학교성적 떨어지는 등의 행동 변화가 있다면, Bullying을 당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모든 학생들이 절대 bullying을 당해선 안되지만 불가피하게도 이것은 현재 학교에서 번번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intended to convey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t to provide legal advice or opinions.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the posting and viewing of the information on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for, legal advice in any particular circumstance or fact situation, as there is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THIS DOCUMENT IS THE PROPERTY OF LAW OFFICE OF JENNIFER S. CHANG. IT MAY NOT BE DUPLICATED IN ANY MATTER.

놀이치료에 대한 Q&A

놀이치료에 대해 부모님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몇 가지들을 골라 쉽고 간단하게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놀이치료란 무엇인가요?

A 놀이치료란 놀이와 심리치료를 병합한 것으로, 언어적 표현이 미숙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과거 일을 설명하면서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치료방법입니다. 여러가지 놀이를 통해 아이의 문제행동 또는 정서적 불안감을 스스로 이겨낼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심리치료입니다. 예를 들면, 상담 중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모래를 만지면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를 치료사에게 하고 인형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가족이야기를 합니다.

Q 아이들이 놀이는 항상 하는데 놀이와 놀이치료는 어떻게 다르가요?

A 아이들은 매일 놀이를 하고 부모님들도 아이와 놀아줍니다. 하지만 놀아주는 것과 놀이치료를 다릅니다. 놀이치료는 치유의 기능이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치료사가 아이의 문제와 마음을 만져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놀아주는 것의 예 아이가 가족그림을 그린 후,

치료사: 어떤 그림을 그린거니?

아동: 가족을 그렸어요. 엄마, 아빠, 나, 그리고 여기 동생도 있어요.

치료사: 너무 이쁜 그림이다. 정말 잘 그렸구나.



놀이치료의 예 아이가 가족그림을 그린 후,

치료사: 그림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즐거워 보이구나.

아동: 가족들을 그린거예요. 엄마, 아빠, 나 그리고 여기 동생도 있어요.

치료사: 동생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 있구나. 그런데 넌 엄마아빠와 조금 떨어져있구나.

아동: 동생은 아직 애기라서 엄마 가까이 있어야해요.

치료사: 아 동생은 어리니깐 엄마랑 있어야하구나. 근데 너 이 이야기하는데 슬퍼보이네. 선생님한테 더 이야기 해줄 수 있어?

아동: 그게 ...

Q 어떤 아이들이 놀이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놀이치료 만 4세부터 12세 아이에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청소년들과 심지어 노인에게도 놀이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놀이치료는 불안감이 높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 부모와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는 아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 산만하며 충동적인 아이, 부모, 형제 또는 또래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아이에게 효과적입니다.

Q 놀이치료 수업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치료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림그리기, 노래, 모래놀이, 역할 바꾸기, 만들기, 연극, 보드게임, 그리고 춤추기 등 여러가지 창의적인 놀이들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어린 아이들 (4-6세)들에게는 지시 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놀이를 골라 아이가 주체가 되어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통 45분~50분 세션으로 진행되고, 그 중 마지막 10분은 부모님과 상담으로 마무리합니다.

Q 부모도 놀이치료에 함께 참여 할 수 있나요?

A 온 가족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또는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라면 가족놀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Q 놀이치료는 얼마나 해야하나요?

A 아이들의 심리치료는 어른들에 비해 아주 오래걸립니다. 단기간에 효과가 있기보다는 꾸준히 받아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모든 부모님께 최소 12번의 세션(약 3개월)을 권유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놀이치료는 아동이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지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것을 꼭 생각하시고 조급함을 잠시 내려두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행동문제, 유치원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지 못해 걱정이 있으시다면 센터로 연락주세요.
전화 562-926-2040





Love&Harmony Music Festival을 마치고

장애인들은 비슷한 연령의 비 장애인들에 비해서 친구들과의 상호 작용 기술에서 결함을 보이며 사회적 놀이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입증된 바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놀이가 혼자만의 놀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나이가 많은 장애인들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조기 교육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회적 기술의 결함이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 장애인들은 매주 주일, 서로 교감하고 사랑하며 또한 도와주며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드리는 모습을 비장애 크리스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 4월 24일 사랑의 하모니 음악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다. 첫째는 이렇게 귀한 음악회를 통해 영광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했고, 둘째는 이렇게 학생들을 음악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참석하여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하고, 셋째는 늦은 시간까지 우리 학생들이 주 연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나눠준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했다.

평소에는 집중력이 약해 오래 못 앉아 있던 우리 학생들이 3시간이 가까운 음악회가 진행되는 동안 그렇게 찬양과 노래와 춤과 다른 사람들의 공연과 악기 연주를 들어면서도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던 우리 학생들을 보며 이렇게 마음과 영혼과 몸을 하나로 묶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리며, 이런 귀중한 부르심에 순종한 한미특수교육센터에 감사했다.

말과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우리 학생들에게 참다운 소통이란 어떤 것이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말과 대답이 오고가야만 소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꼭 몸을 함께 부딪혀 가며 몸 씨름을 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음악회를 보며 느꼈던 것 하나는 이들이 지금 비장애자의 소리를 듣고 있고, 비장애자는 장애자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니 누가 장애자이고 누가 비장애자 인지 그 이름을 굳이 물을 이유가 없었다. 굳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굳이 몸을 부대끼며 부딪히지 않아도 우리는 음악의 선율을 따라 누구의 강요도 없이 누구의 인도도 없이 그렇게 함께 듣고 함께 즐겼다.



학생들은 무대를 통해서 사회와 소통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회와 세상으로 데리고 나와서 자녀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연결점이 되어주셨다. 또 세상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던 너무나 귀한 음악회였다.

이러한 무대를 통해 그리고 기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소통에 문이 열리고, 세상도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고, 아프다고만 생각했던 사람들과 실제로 가까워져서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자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땅에 보내진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으로 자주 자주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 학생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줄 사람들은 학부모님들이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세상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모니 음악축제가 음악축제에 참가자들이 공연을 보고 박수를 치고 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사랑부 학생들이 우리 함께 모여와 찬양하세를 공연하고 있다.

비장애인·장애인 하나된 음악축제

한미특수교육센터 '사랑의 하모니' 600여명 관객 참가

한인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한 음악축제가 열렸다.

'한미특수교육센터' (소장 로사 장)는 지난 24일 오후 6시 플라톤 소재 은혜한인교회 미라클 센터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하모니 음악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축제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베델한인교회' '은혜한인교회' 장애투 모임의 가족과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찬양과 율동, 수화찬양, 핸드차임 공연 등의 공연을 펼쳤다.

또 나성영학교의 앤드류 김(이아노), 정주수(현악), ANC 온누리교회 폴 신(바이올린), 제임스 조(노래)

등과 선 강(노래), 도로서 조(노래) 학생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선 강군의 아버지 강성현씨는 무대를 함께 하면서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로사 장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음악축제의 특징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비장애 친구들과 함께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 서는 것"이라

며 "공연을 함께 준비하면서 서로 더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채워 주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로사 장 소장은 또 "음악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고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가 된다"며 "늘 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장애학생들이지만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즐겁고 행복해 하며 자신감을 얻게 된다"고 강

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코람' (기휘 이수정)의 '나 무엇하든지 주께 영광 돌리리'와 '이리랑', 캄퍼 뮤직 그룹인 '멜리버러스 앙상블'의 에그 본트 오바저, 은혜한인교회 마이클 남궁(이아노 솔로), '아주먼 옛날'에 수 아들이 온 땅에, '저저스 라잇'에 트치암 연주, '내게 있는 장유옥 형' 등의 공연을 펼쳤다.

(문태기 기자)

tymoon@koreatimes.com

국민일보 2016년 5월 6일 금요일

종합

3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만든 천상의 하모니

한미특수교육센터 주최 사랑의 하모니 음악축제 출연진 포함 600여명 성향 함께하는 '동행'의 의미 전달

장애우와 비장애우들이 모여 음악을 통해 마음과 마음을 엮어냈다.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 장)는 지난 24일 플라톤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미라클 센터에서 '사랑의 하모니 음악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한미특수교육센터가 개최해 온 리브 앤 하모니 음악축제(Love & Harmony Music Festival)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출연진 200여명과 진행 도우미 60여명 등 전체 600여명이 참석한 장애인들과 비장애우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 '동행'의 의미를 되새겼다.

음악회는 주제에 맞게 나성영학교, 남가주 사랑의교회, 베델한인교회, 은혜한인교회, ANC 온누리교회, 성도마사 성당 등 남가주 한인 종교기관들 중 장애인부서가 있는 교회들과 달리버러스 앙상블과 KAM 합창단, 한미특수교육센터 음악부 등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음악

기관이 함께 참여해 감동적인 무대를 꾸렸다.

로사 장 소장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충분히 감동적인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의 음악적인 재능도 살려주고 싶었다"며 "비행 중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박수를 쳐주며 환호해 주 연주자들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심어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영림 주 하원 의원은 "한인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한 치료와 교육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 서서 애쓰고 있는 센터 사람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며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의 연주와 노래를 들으며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 류상민 부총영사는 "한인 장애인들을 위해 이런 행사가 마련됐다든 점에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음악회와 같이 한인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내에서 아름다운 화합과 동행의 하모니가 울려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음악회는 그레이스 찬양팀이 이끄는 다함께 부르는 찬양의 시간부터 막을 올렸다. 성도마사 성당의 도로서 조 군이 '유 라이스 미 업'을 부



사랑의 하모니 음악축제에 참가한 출연자들이 영림 의원이 전달한 상장을 받고 즐거워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르며 감동의 문을 열었다. 이후 한미특수교육센터의 선 강과 강성현 군이 그녀가 나를 사랑했을 때와 아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다.

남가주 사랑의교회 사랑부는 약간은 불편하지만 은혜스러운 몸짓으로 찬양과 율동을 선보여 보는 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이어서 ANC 온누리교회와 베델한인교회, 나성영학교의 팀들이 바톤을 받아

은혜와 감동을 이어갔다. 이후 달리 버리 앙상블과 KAM 합창단들이 아름다운 연주와 화음으로 화답하고 은혜한인교회 마이클 남궁과 핸드차임 연주 팀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엘에이에서부터 가족들과 함께 참석한 더 박 씨는 "지금까지 다녀본 어느 공연보다 더 깊이 감동했다"며 "하나하나의 음표가 모여 화

음을 이루며 음악을 만들 듯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화음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간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의 메인 후원자인 왕글로발넷과 농심, 정관동 등에서는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신창호 기자 jshin@kukminusa.com

2016 FSN 무료발달선별검사 행사 결과 보고 및 후기



지난 4월22일, 한미특수교육센터는 제5회 무료발달선별검사 행사를 Family Support Network (FSN)과 함께 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는, 0세에서 5세 사이 아동들의 언어발달, 대근육/소근육 발달, 치아건강, 청력, 시력, 정서발달 등 총 7가지 영역에 대한 선별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모든 검사는언어치료사 등 각 발달영역의 전문가들이 나와 진행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검사과정이 끝나고 나가실 때 바로 알려드렸고, 더 자세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School District이나 Regional Center 또는 저희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사 후 Recognition Award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OC Supervisor 이신 Michelle Steel께서 행사를 후원해주신 분들과 FSN, 그리고 저희 센터에 어워드를 수여해주셨습니다.

올해 검사를 받은 아이들은 총 56명으로, 그 중 47명인83%의 아이들이 추가권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총 추가 권고수는 71 건이었습니다. 그 중 올해 검사 결과에서도 작년과 같이 언어발달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재검사 권고를 받은아이들과 언어발달 항목 권고수를 바탕으로 봤을 때, 3명의 아이들중 1명은 언어지연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검사 권고에 대한 전체적 통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검사항목	재검사 권고	검사항목	재검사 권고
정서	10건	체중	0건
청력	12건	소근육발달	9건
시력	5건	대근육발달	6건
치아	8건	언어	21건
총 재검사 권고수: 71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본 행사를 통해 아이들의 조기 발달장애 가능성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특수교육센터 주최로 이번 9월 LA에서 무료발달선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한미특수교육 센터 프로그램 안내

ASQ Developmental Screening

Wang Globalnet Fund의 지원으로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발달선별검사를 해드립니다. 자녀의 발달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센터로 문의전화바랍니다.

KASEC Open House

한미특수교육센터에서 정기적으로 Open House를 엽니다. 이 날에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언제든지 센터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자녀의 심리문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동심리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Art & Craft도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오셔서 센터 정보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Parenting Seminar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2016년에는 다양한 부모교육세미나가 열립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와 부모님의 스트레스 조절방법, 효과적인 대화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OC 무료 발달 선별검사 행사

Orange County 전역의 가정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비롯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온 Family Support Network와 협력하여 OC에 사는 아이들을 위한 무료 발달 선별검사를 엽니다.

LA children's Health Screening Fair

NTC Wismettac Fund의 지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10월 LA에서 Developmental Screening 행사를 엽니다. 무료로 8개의 발달 영역에 대한 선별검사와 자폐증 및 발달장애와 관련된 상담 및 학교서비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KASEC 농구교실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농구의 기본기술을 배우고, 사회성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찾아가는 세미나

시간과 장소의 제한으로 센터에서 여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교회나 유치원, 기관등으로 원하시는 날에 맞춰 찾아가서 세미나를 해드립니다. 아동의 심리행동문제, ADHD(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Parenting Skill, 자폐증과 발달장애등 다양한 주제로 센터 전문가들이 강의합니다.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Summer Fun camp

음악치료와 미술치료를 이용하여 발달장애학생들의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소근육 운동 발달을 도우며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증진 시켜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도 재미있는 활동들로 진행됩니다.

발달장애학생 부모님을 위한 Healing Time

심리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나만을 위한 휴식 시간"입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2016년 3월2 1일부터 5 월 31일까지)

개인

김경희, 나성애, 박수정, 박영숙, 박지경, 신동희, 안송주, 윤현숙, 이성희, 이은영, 장인숙, 조동연, 한동휘, Bella Shim, Choi Family, Jennifer Jung Kim, Ji Won Oh, Kimberly Park, Ok Chom Chong, Sang W Lee, Shin Kyu Kim, Stella Gee, Sung Yi Kim, Susan Chung, Yunkyung Oh

교회 및 단체

뉴저지초대교회, 미주서부교회, 하심교회, GP Enterprise Corp., Mias Fashion MFG, Co. Inc., PHS Cleaners Inc., Minsley Foundation, Nongshim Holdings USA, Korean Consulate General, Open Stewardship Foudnation, WE & I, AXA Foundation

* 광고후원자 명단은 따로 적지 않고 광고로 대신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지난 6개월간 (Dec.2015 - May 2016)

총 395 Session의 치료 및 상담 서비스와 총 240 program session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 후원안내

1. 저희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은행에 저희 은행 및 계좌 information을 주시면 됩니다.

Bank Name: **OPEN BANK**

Routing Number : 122043958

Account Name: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Account Number: **04200218**

2. 매달 자동 check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사용하시는 은행의 Online Banking 에서 저희 센터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센터이름: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주소: 13353 Alondra Blvd. #110, Santa Fe Springs, CA 90670

3. 우편으로 Check를 보내주실 분들은 Payable to KASEC 로 쓰셔서 위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4. Smile.amazon.com

Amazon으로 쇼핑 하실 때, smile.amazon.com으로 들어가셔서 “pick your own charitable organization”에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를 선택하시면 총 구매 금액의 일부가 자동으로 KASEC으로 기부됩니다.

* 저희 센터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ax ID 20-1635852)

진료 과목

- 일반내과(고혈압, 당뇨병)
- 소아과(예방주사, 신체검사)
- 부인과(PAP Smear, 유방암 검사)
- 외과, 피부 비뇨기과
- 종합 건강 진단과 진찰(Physicals)
- 직장사과, 교통사과
- 응급치료(Urgent Care)
- 알러지 검사 및 치료
- 각종 피검사
- X-Ray 검사, 초음파, 심전도
- 위, 장 내시경 및 조직검사
- 레이저 치료
- 골다공증



각종보험 / 메디케어

진료 시간
월-금: 8:30AM~6PM
토: 8:30AM~1:0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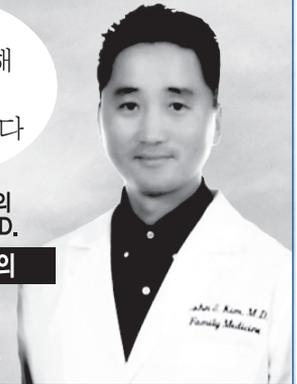
김신근 가정 주치의
John S. Kim, M.D.

미국 보드 전문의

562.402.7622

11911 Artesia Blvd. Suite #101 Cerritos, CA 90703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TranStar Transportation, INC.

Jay Shin, President

Truck Load, Less Than Truck Load and Transportation Service

- ◆ Truck Load to Northern California, UT, CO, AZ, NV, TX, etc
- ◆ LTL(Less Truck Load) Service in California
- ◆ 53 ft Trailer & 26 ft Bobtail Trucks available

Tel: (310) 534-0113

Mobile: (310) 800-8510

Fax: (310) 534-0116

E-mail: Transtar.inc@gmail.com

24328 S. Vermont Ave. suite #355 Harbor City, CA 90710



한국의 맛을 전하는

자연나라

제이원은 자연나라의 패밀리 브랜드입니다.

Jayone.com

www.facebook.com/JayoneFoodsInc

JS Auto Tech Inc.

Auto Body & Repair

24 Hour 714.878.5945 Toll Free 888.636.5067

이요섭 **Joseph Lee** President

www.jsirvineautobody.com

jsautotech@hotmail.com

FULLERTON BRANCH

158 N. Gilbert St. Fullerton, CA 92833
T. 714.870.0600 F. 714.870.0670

H.Q OFFICE

10571 Acacia Ave. Garden Grove, CA 92840
T. 714.636.5067 F. 714.636.5068

IRVINE BRANCH

260 E. Dyer Rd. Santa Ana, CA 92707
T. 714.557.0500 F. 714.557.0503

“찾아가는 서비스”

24시간 무료 토잉

Since 1992

STEVEN C. KIM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STEVEN C. KIM ATTORNEY AT LAW

The Wilshire Colonnade

3701 Wilshire Blvd., Suite 1040
Los Angeles, CA 90010

(213) 365-7007

Fax (213) 365-7001

stevenkim@sbcglobal.net

BETHEL Dentistry

벤엘
치과

Seokwon Jang D.D.S

Mon~Fri 9:30am~6:00pm
Thur Close
Sat 9:00am~1:00pm

원장 장석원

Tel. 714. 869. 3043

Fax. 714. 869. 3051

1821 W. Commonwealth Ave. #B, Fullerton, CA 92833

Michelle Cho REALTOR®

Cell: 714.388.2002

realtor.michellecho@yahoo.com



BEST REALTY

Office 714.451.1700
Fax 714.451.1720
413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License #01408110
Broker #01218421
Each Office Is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유재욱
팀장
HP TEAM 76

C : 213-700-0173
E : jaeyoo929@gmail.com
www.coway-usa.com



COWAY USA INC.
422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CA 90010

Christina Kwon Realtor®



Direct: (714) 504-6767

Office: (714) 451-1700

Fax: (714) 451-1720

christinakwon@socalbest.com



BEST REALTY

413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Each Office Is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Solution for Tomorrow



WORLD INC.

CEO David Chul S. Yang
대표 양철승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 323.730.5050 F 323.731.1313 C 323.383.3723 david@laservisionworld.com

AMERiTS

The Company You Can Trust

Jee Suk (Jessica) Chun

Manager

Financial Professional

CA LIC. #0103150

Life Insurance • Annuities • IRA & 401K Rollover

C 562.756.2168

F 714.690.1264

E jeechun08@gmail.com

18115 Valley View Ave #203 Cerritos, CA 90703 • Customer Service 844.292.8845

www.AMERiTSFS.com

PARIS BAGUETTE

Cerritos
Branch

17416 Carmenita Rd.
Cerritos, CA 90703
Tel. 562.404.0440

LAW OFFICE OF JENNIFER S. CHANG

JENNIFER S. CHANG, ESQ

5900 WILSHIRE BOULEVAR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36

JENNIFER@JENCHANGLAW.COM
TEL (323)931-5270
FAX (213) 896-7050

WWW.EDUCATIONRIGHTSATTORNEY.COM
WWW.JENCHANGLAW.COM

“ 제니퍼 장 변호사는 따돌림, 정학, 퇴학같은 학교 생활 문제부터 특수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사안까지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교육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



wang and  are family.



The Original Korean Brand

Taste of Korea



Executive Director

Rosa Chang (M. Ed. in Special Education,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Board Members

이사장: 양한나

실행이사: 한규삼 (뉴저지 초대교회 담임목사), 이경미 (AXA Financial Advisor), Bella Shim, 조제원 (KIST, 신경과학부 교수), Christina Kwon (Realtor, Coldwell Banker), John Kim (세리토스 메디컬 센터 병원장), 강승현 (Wang Globalnet 대표)

Advisory Board Members

이시연 박사 (Cal State LA 사회복지학과 교수)
Susan Chung 박사 (Kaiser 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
송혜경 박사 (Cal State Fullerton, 의사소통장애학과 교수)
정우식 박사 (Cal State Fullerton, 특수교육학과 교수)
박량규 박사 (아이코리아 아동발달교육연구원 원장)
박현선 박사 (Children's Hospital of Orange County, 소아 발달전문의를)
박규남 (Special Education Specialist, Lynwood School District)
Jennifer Chang (특수교육법 변호사)

Administrative Staff

Administrative Support Team Manager

Bo Yeon Kwon (M.A. in Counseling, Yonsei University)

Planning & Public Relations Manager

Sam Yoon (B.A. in Church Music, Yonsei University)

Program Coordinator

Jenny Kwon (B.A. in Child Development & Family Life Education, CSULB)

Clinical Staff

Therapy

Esther Lee (CCC-SLP, M.A. in Speech-Language Pathology, Northwestern University)
Heesoon Jeon (M.A. in Music Therap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ichelle Oh (MFT Intern, M. A. in Clinical Psychology, Azusa Pacific University)
Yujin Park (MFT Intern, M.S. in Counseling Psychology,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Christina Cho (M.A. in Occupational Therapy, CSUDH)

Adapted Physical Education Program

Kevin Ma (M.A. in Education, CSUDH, APE Credential in CSUN, 현 LAUSD APE Specialist)

Clinical Supervisor

Kyunghee Kim (LMFT, M.S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y, Fuller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Developmental Disorder Evaluation

Hyun S. Park (M.D. in Developmental Pediatrics, 현 UCI Asst. Clinical Professor of Pediatrics)

Special Education Consultation & ADHD Consultation

Hwa Byuck Lee (M.A. in Special Education, CSUF, 현재 Los Cerritos School RSP Teacher)